

군산시는 관내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농식품기업 보조사업을 스마트 제조 기계, 설비 지원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.

대상 사업은 4개로 △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△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△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△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지원사업이다.

먼저 스마트 HACCP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HACCP 인증 상담 대신 중요관리점(CCP)을 점검하는 자동화 설비 및 데이터 전송 장비 등 도입을 지원한다.

이밖의 사업은 스마트 제조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을 완료한 농식품기업 희망대상자 심사를 통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.

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"식품산업 전 분야에서 식품 기술(푸드 테크) 산업이 확산되면서 이에 맞춘 관내 농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인력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"고 말했다.

/군산=이찬우 기자

## 군산시, 농식품기업 스마트 제조 확대 지원

군산시(시장 김임준)가 관내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농식품기업 보조사업을 스마트 제조 기계, 설비 지원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.

대상 사업은 4개로 △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△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△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△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지원사업이다.

먼저 스마트 HACCP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HACCP 인증 상담 대신 중요 관리점(CCP)을 점검하는 자동화 설비 및 데이터 전송 장비 등 도입을 지원

한다. 그 외 사업은 스마트 제조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, 신청을 완료한 농식품기업 희망대상자 심사를 통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.

채왕균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"식품산업 전 분야에서 식품 기술(푸드 테크) 산업이 확산되면서 이에 맞춘 관내 농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인력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"고 말했다.

/군산=이재춘 기자

## 전북도민일보

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010면 지역

### 군산시, 농식품기업 스마트 제조기계 지원

군산시가 기존 농식품기업 보조사업을 스마트 제조 기계, 설비 지원으로 변경 추진한다.

농식품 기업의 경쟁력 제고 일환으로 ▲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▲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▲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▲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지원사업이다. 스마트 HACCP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HACCP 인증 상담 대신 중요관리점(CCP)을 점검하는 자동화 설비 및 데이터 전송 장비 등 도입을 지원한다.

다른 사업은 스마트 제조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. 신청을 완료한 농식품기업 희망대상자 심사를 통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.

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채왕균 소장은 "식품산업 전 분야에 걸쳐식품 기술(푸드 테크) 산업이 확산됨에 따라 관내 농식품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인력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군산=정준모 기자

# “푸드 테크 산업 확산 맞춰 적극 지원”

## 군산시, 농식품기업 '스마트 제조 기계·설비'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

군산시가 지역 내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보조사업을 스마트 제조 기계 및 설비 지원으로 전환한다.

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△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△스마트 HACCP 지원 △창업 식품기업 지원 △소규모 식품

소재 및 반가공산업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.

특히 스마트 HACCP 지원사업은 기존 인증 상담 대신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 전송 장비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.

군산시는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

행할 예정이며,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식품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.

채왕균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“푸드 테크 산업 확산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/박상만 기자